2008 새해설계 ⑥

(사)세계평화여성연합 포천지부장 박영희

'세계평화는 모성애 바탕으로 한 여성의 참 사랑으로'

북한사랑 1%운동 · 노인정 봉사활동 · 청소년 순결운동 펼쳐

"북한사랑 1%운동을 전개하여 북한에 있는 어린이를 직접 돕고 있다. 1천원 이상 성의껏 개설된 통장에 자동이체 신청하면 세계평화여성연합 본부를 통해 직접 북한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세계평화여성연합 포천지부 박영희(53 · 사진)지부장은 "포천지부는 노인정 청소와 노인들과 말벗하기, 노래 불러 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며 "지난해에는 금강산 청아캠프에서 개최된 신문명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WFWP세계여성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에 한번도 빠짐없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도에는 등반대회도 하고 청소봉사는 물론 노인정 봉사활동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992년4월10일 창립한 세계평화여성연합 포천지부는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청소년 순결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시집와서 낳은 2세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박 지부장은 세계평화여성연합에 대해 "1992년 창설되어 세계 120여 국가에 그 지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평화는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참 사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사랑과 봉사를 통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UN에서도 그 실적을 인정하여 1997년부터 전세계 수많은 NGO가운데 몇 안되는 UN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지위의 NGO로 승인받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특히 금강산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우리는 순결과 효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참된 딸이 되고, 정절과 헌신으로 남편을 내조하는 참된 아내가 되며,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참된 어머니가 되어 하나님을 모신 참사랑의 참된 가정을 이루고 적극적인 사회봉사로 창조본연의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여성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태안반도 기름유출 피해지역 기름제거

해병대전우회 · 월남참전고엽제 전우회 40여명

해병대전우회 포천시지회(지회장 오순철)는 월남참전고엽제 포천시 전우회원과 함께 3월9일 태안반도 기름유출 피해지역을 찾아 기름제거에 나섰다.

이날 해병대전우회 회원 30명과 월남참전고엽제 회원 10명은 태안반도 천리포해수욕장 인근의 갯바위지대에서 기름제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포천시 해병전우회 박덕현 사무국장은 "전국 곳곳에서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제거에 열심이었으며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회원들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까지 점심식사를 뒤로 미루고 약 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마친 후 포천시로고가 그려진 현수막을 걸어놓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해병대전우회 포천시지회는 월남참전고엽제 포천시 전우회원과 함께 3월9일 태안반도 기름유출 피해지역을 찾아 기름제거에 나섰다.

미군훈련에 따른 안전주의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영평지역

미2사단은 2008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영평지역을 중심으로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일대에서 전차 및 장갑차100대가 참가하는 훈련을 한다고 포천시청에 통보했다.

훈련내용으로는 탱크 및 장갑차의 기동훈련, 소화기 및 대구경 자주포, 아파치 헬기의 저공비행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포천시청에서는 도로 및 비늘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 발생방지, 야간사격자제(24:00~익일07:00)를 조건부로 협조했고, 아울러 관련유관기관 및 해당지역주민에게 훈련기간 내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피해신고 및 문의 : 538-2161~3, 538-2119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청소 제안제도 공모 토론회

청소대행 업체 등 참석 개선사항 발표

포천시는 12일 김광준 국장 주관으로 읍면동 청소담당 공무원, 청소대행업체 대표 및 반장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 관련 제안제도 공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천시는 지난 12일 김광준 국장 주관으로 읍면동 청소담당 공무원, 청소대행업체 대표 및 반장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 관련 제안제도 공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25명 전원이 청소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실행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의 입장에서 보완하는 등 열띠게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농협과 협조하여 농협달력에 쓰레기 배출시간을 홍보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윤기 환경자원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와 예산문제 등을 검토하여 포천시의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7080콘서트 포천 반월아트홀서 공연

사랑과 평화, 건아들, 최성수밴드, 옥슨 80 출연

7080콘서트가 오는 3월21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

바쁜 일상에 치여 예전 그때의 낭만이 희미해져 가는 7080세대 직장인들이여... 정겨운 노래를 그리운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여러분의 그 시절을 함께 했던 벗들과 추억을 찾아 떠나자.

이번 포천반월아트홀 7080콘서트에는 '한동안 뜸 했었지'란 곡으로 1977년 데뷔한 '사랑과 평화'와 가요제 출신 밴드로 1980년 MBC대학가요제 금상을 수상한 '옥슨80', 1980년 TBC 젊은이의 가요제 장려상을 수상한 '건아들'로 락밴드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외모나 춤사위 등 멋진 모션으로 무대에서 또 다른 노래의 묘미를 보여준 80년대 대표가수 최성수가 밴드와 함께 출연하여 멋진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군내면 게이트볼협의회 친선대회

4개 마을 8개팀 200여명 참석, 기업인 후원

포천시 군내면 게이트볼협의회(회장 이복현)는 지난 13일 관내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한 제1회 군내면 게이트볼협의회 친선대회를 직두1리 체육공원에서 개최했다.

관내 4개 마을의 8개팀 200여명의 노인선수 및 주민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인 이번 대회는 이조산업(대표 문기봉)의 후원(300만원 상당)으로 개최됐다.

포천시 군내면 게이트볼협의회는 13일 관내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한 제1회 군내면 게이트볼협의회 친선대회를 직두1리 체육공원에서 개최했다.

참가팀들은 한 달여 동안 대회준비를 하며 대회당일 기량을 한껏 뽐내어 관중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군내면 노인회(이호연 노인회장)는 "이번 게이트볼대회를 통한 여가활동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른으로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내면을 만들기 위해 꽃길가꾸기 사업과 환경정비 등에 솔선수범 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군내면 주민이 화합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운천재래시장 연구용역 보고회

포천시는 지역경제 침체와 소비형태의 변화로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있는 운천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경제농정국장 및 시장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영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운천재래시장 및 주변상가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중장기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방안을 중점 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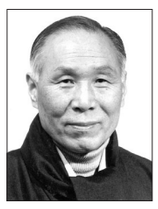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 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이밖에도 상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 됐다.

김광준 경제농정국장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운천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신청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웰빙 부사의(不思意) 갈등(葛藤)과 고민(苦悶) 45

'세상만사(世上萬事) 마음먹기에 달렸고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규임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

우리는 주위에서 갈등(葛藤)이란 말을 흔히 듣는다. 또 고민(苦悶)이란 말도 많이 듣는다. 갈등이나 고민은 무엇에 대해 결정(決定)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갈등은 '행복(幸福)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갈등은 선택가능(選擇可能)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터네티브(alternative)가 있을 때 생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이스(choice)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터네티브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초이스는 대상이 둘 이상이어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노 얼터네티브(no alternative) 노 초이스(no choice)가 되면 갈등은 저절로 사라진다. 망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택(選擇)의 여지(餘地)가 없기 때문이다. 망설일 일이 없으니 주춤할 이유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나밖에 없으니 갈등(葛藤)할 필요가 없고 고민(苦悶)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괴로워하지 않고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남몰래 혼자서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고민은 혼자서 속을 끓이는 것이다. 혼자서 애태우는 것이다. 애를 태운다는 것은 창자를 태운다는 것이다. 창자를 태우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말로 다 형언(形言)할 수 없을 것이다.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통에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려야 한다. 비워야 한다. 온갖 잡동사니로 꽉 차 있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욕심(慾心)을 버리고 사심(邪心)을 버리고 정심(正心) 정각(正覺)으로 돌아가야 한다. 채색(彩色)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채색된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다. 왜곡(歪曲)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왜곡된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다. 채색된 눈을 내려놓아야 한다. 왜곡된 눈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아야 한다.

고민은 욕심(慾心)에서 온다. 원트(want)에서 온다. 고민은 니드(need)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트에서 오는 것이다. 니드란 절실(切實)함을 말하는 것이고 원트는 욕망(慾望)을 말하는 것이다. 욕심은 금물(禁物)이다. 니드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자족(自足)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어야 한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사냥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비극(悲劇)이 여기서 싹트는 것이고 인간의 고민(苦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고민은 또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진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려야 한다. 최선을 다 하되 결과(結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다.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것이다.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그 다음은 자연(自然)에 맡겨야 한다. 운명(運命)에 맡겨야 한다. 내 노력(努力)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의지(意志)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걱정과 근심은 불안(不安)한 마음에서 온다. 두려움에서 온다. 마음을 편안(便安)히 가져야 하는 이유이고 자신감(自信感)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일은 내 손을 떠났다.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 숨 돌리면서 다음을 대비(對備)하고 앞일을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省察)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불안하게 하는 요인(要因)이 무엇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근원(根源)이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그것이 고민을 해결하는 상책(上策)이다.

만유일체유심조(萬有一切唯心造)라 하지 않았는가? 세상만사(世上萬事) 마음먹기에 달렸고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말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갖자.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자. 마음이 편안하면 매사가 편안하고 일이 즐겁다.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주부이야기

나의 재산은?

용경자
주부명예기자단 감사

아들 녀석은 유치원 다니느라 졸린 눈을 비비고 딸아이는 방학동안 늦잠 자던 습관 때문에 아침이면 비몽사몽이다.

어린 시절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화사한 봄옷을 입었다가 감기에 걸려 혼이 나곤 했지만 지금은 그때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얇게 옷을 입고 다니는 딸아이를 혼내고 있는 실속파 엄마가 되어버렸다. 문득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나는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를 생각해본다.

호화로운 거대 평수의 아파트나 고급 승용차 또는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다. 굳이 가진 것이 무어냐고 묻는다면 빚이 조금 있지만 능력이 있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 그것도 나의 재산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누구나 그렇듯이 사랑스런 아들, 딸이 있다.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지만 내 눈에는 어린 아들이 글씨를 읽는 것을 보는 순간 혹시 천재가 아닐까? 하는 착각도 해보고 딸이 커서 엄마가 피곤하고 힘들 때 밥도 해놓고 빨래도 널어주면서 엄마 어깨도 시원하게 주물러 주는 것을 보면 너무도 대견하다. 언뜻 나와 신랑의 버릇을 따라하고 꼭 닮은 생김새를 볼 때면 고려청자의 완성을 보는 듯 황홀하고 신통하기만 하다. 이런 행복을 주는 자식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텐데 자꾸 샘솟는 욕심을 뿌리칠 수 없으니 나도 별 수 없는 보통 엄마였다.

세 번째로 나는 포천의 맑고 신선한 공기의 주인이다. 서울에서 느끼지 못하는 맑은 공기는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요 집사다.

또한 건강과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해주는 포천의 산천초목도 언제나 주인님을 기다리듯 나를 경건하게 맞이해 주니 나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집이다. 서울의 삼청동에서 외롭게 성을 지키는 우아한 여왕이 되기보다는 생활비도 적게 들고 도선생이 호시탐탐 노리지도 않는 사람냄새가 물씬 나는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가 참 좋다.

하지만 특별한 나만의 재산이 있으니 그것은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강한 나의 신체, 그리고 작은 공장과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환영받는 신랑의 기술이 아닐까? 아침 일찍 거래처에 납품을 갔다가 그곳의 사모님이 차를 한 잔 건네면서 신랑에 대해 칭찬을 하신다. 나의 이익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주는 점에 호감을 느꼈다고 하셨다. 순간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세상 모두를 가진 듯 뿌듯했다.

오늘 당장 로또가 당첨되어 긴 숫자의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된다 한들, 수 만평의 땅이 내 이름으로 기록된다한들 이 자신감의 원천인 신랑과 바꿀 수 없으리라.

추운 겨울 빨간 내복을 입고서 장사를 나가신 엄마를 기다리던 소녀가 자라나서 엄마가 되었고 그때에 비하면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듯하다.

웃음으로 건강만 챙긴다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면서 부자가 된 듯 뿌듯한 마음으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련다.

친구과의 이별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 단장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가 먼 여정길에 올랐다. 예견은 했었지만 그렇게도 바쁜 걸음 재촉할 줄은 몰랐다. 얼마전 통화할때만해도 공기좋은 산정호수에 놀러오라는 나의 권유에 다리에 힘이 없어 아래층도 못내려간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남대문 동대문 휩쓸며 물건 해다가 팔고 싶다고 했다.

불과 6개월전 정주롯데백화점에서 까르벤접, 신강식 브띠끄, 황지영 브띠끄 매장을 3개나 운영하는 등 활기찬 인생에서 갑작스레 바뀐 자기의 생활이 아쉽다는 마음을 털어 놓았는데….

천년을 살 것처럼 조그마한 갤러리에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통차 대접하며 느즈막 세월 낚고 싶다던 친구가 홀연히 떠나간 빈자리에 가슴이 저린다.

승부는 엄두도 못내는 그런 한판승이라면 고통이 덜할 때 어쩌면 재촉한 삶의 허무함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노래, 그림, 공부 등 못하는 게 없었던 친구. 동행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가슴에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현 위치를 깨닫는 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의 교류를 가르쳐 주고 떠난 듯 싶다.

총명하고 당당하던 조그마한 체구에 배움의 손 놓치 않았던 어제를 뒤돌아보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천년동안 살 기를 바라기 보다는 안주하고 있던 지금의 현실을 깨닫고 남은 삶 동안 베풀고 나누고 이해하여 참된 삶 영위하다가 가고 싶다.

내 자신의 교통정리, 규율을 잘 지키다 보면 화합, 질서는 물론 불편한 비포장도로가 편안히 갈 수 있다. 아스팔트길로 변하지 않을 까 싶다.

구름 위에 뜬 사랑이불 덮고 하나님 곁에 포근하게 잠들기를 바란다.